

빈약한 재정, 흔들리는 사학

심층분석

(2) 재단 전입금에 관하여

92년도 들어 사립대학가는 등록금 인상률에 따른 분장으로 소란하다. 본교의 경우 등록금 투쟁 과정에서 국고보조금과 함께 재단전입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학교와 학생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단전입금의 경우 학생측은 재단전입금의 확충 즉, 서울의 경우 75억원과 수원의 경우 81억원으로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올바른 산출근거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단전입금의 예산 산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우선 재단전입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경영재산 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 경비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간 학교 운영 경비의 부담은 학교법인 수

익을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연간 운영경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 기준에 관해서는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 학교 정원에 20만원을 곱한 액수로 한 '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원재단의 경우 대학 교육 협의회에서 출간

교육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재단전입금 확충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이 부분은 있어서 서울과 수원의 요구액은 서로 다르다. 서울의 경우 75억을 요구하는데 반해 수원은 81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서울의 경우 건물공사(가정대 건물 신축에 30억, 복지회관 건축에 21억원 소요 예상)에 총 51억원, 재단이 부담하여야

재단 지원에 비한 학생요구액에 큰 차이 수익사업 확충등 공동 대안 모색 바람직

한 대학교육 91년 11월호에 따르면 학교운영비 총42억8천1만3천원 중 34억3천7백17만6천원이 전입되어 8.4%가 학교운영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 학교와 비교해 보면 한림대 64.5%, 인제대 63.9%,

재 국선관, 복지회관, 도서관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어 그로인한 재단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는 이유들로 재단의 예산산공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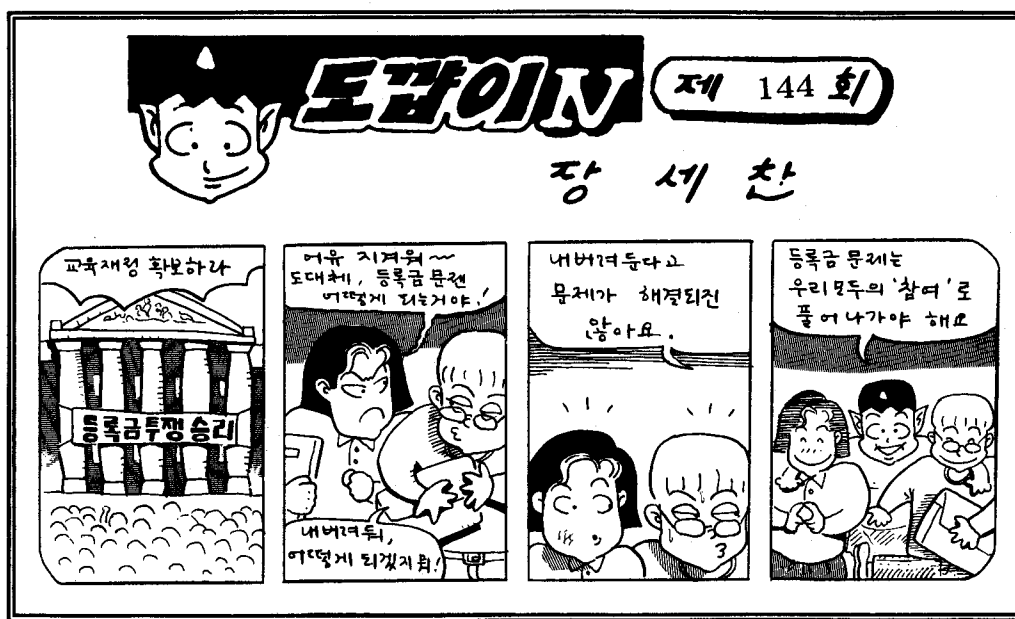
한편 재단에 관련된 문제중 재단공개 이외에도 학생들과 학

할 인건비(총예산중 인건비 비율 54% 기준) 13억원, 유형 고정자산(지리·물리·생물학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3억원, 올해 폐차된 학교 차량에 대한 신규 구입비 1억원, 임시장학금 7억원, 병원전입금 추가분 6억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수원의 경우 재단전입금 81억원에 대한 근거로서 교육용 기자재구입 및 집기 구입비에 9억3천1만1천원, 도서관구입비에 3억2천8백90만원, 건설비 58억9천8백만원, 재단의 유형고정자산 매입을 위해 구입되는 차관 및 원금상환과 이자에 대한 지출 1억2천54만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의 대폭적인 국고보조금과 재단전입금의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차지하고라도 재단 전입금의 경우 학교는 주위 여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재단의 올바른 공개를 통해 상황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알려냄으로써 학생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대한화학회 제69회 총회 개최 지난 24일, 문리대서 1천5백명 참가

대한화학회의 제69회 총회총회 및 연회가 문리대 대학에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국내의 석학 약 1천5백여명의 화학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1백여편의 신규논문 발표 및 유리, 전자 산업 관련업체 7개 기업의 최첨단 기기가 문리대 1층에서 전시되었다.

대한화학회는 지난 47년 출발하여 현재 정회원 2천5백명, 학생회원 1천명 등 총3천5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1년에 두번(봄·가을)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을 순회하며 실시되는 총회는 회원들간의 친목도

교수들이 친밀감을 도모하게끔 하였으며 유망한 교수들과 논문들을 통해 학생들이 살아있는 경험을 가져 앞으로 취업과 연구방법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 유치의 의의를 밝히기도 하였다.

노조 쟁의일정 변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학내사정으로 인해 쟁의제반 일정을 변경하였다.

지난 15일 쟁의발생신고를 노동부에 접수한후 구성된 쟁의대

채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학내 현상유지를 전제로 하는 쟁의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일지에서 기존 29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날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학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하기로 변경하였으며 23, 24일 학교측과의 교섭에서 그간의 쟁의사항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서울총학 춘계농활 실시

서울캠퍼스 농민·학생 연대사업부(이하 농연사)는 춘계농활을 내달 1일부터 5일간 전북 순창군에서 실시한다.

이번 농활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사전 준비답사를 시작으로 약 2백명 정도가 참여하며 의학

계열 단대는 15일까지 실시된다.

윤종근 부총학생회장(사학·4) 농추위장을 맡아 실시하게 될 춘계농활의 목표는 과와 마을 주체 건설, 5월투쟁의 동력으로 승화, 대상을 바라보면서 총선 투쟁의 평가등이다.

지난 24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파업이금 4백20만원 모금이 통과되어 다음달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확충하기로 하였다.

대학주보는 쓴맛(?)

◇...피해자는 기다려야 최고(?)

최근 하나를 베일이 벗겨지는 성폭력 사례로 동부서주하는 곳이 있다길래 노트를 열어보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이 가중되는 현 법안에 법무부가 성폭력피해자 구조기구를 설치기로 해 화제라고.

사례가 비일비재한것이라고. 형을 이해는 가오만 불합리한 시간소비를 조장(?)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을 듯 하와이다.

일부 학생들의 신청에 출려나온 일본기사의 노래로 스물 버스안은 광란의 분위기라고.

학생들, 가는 길의 지루함은 이해하나 자주하원 의치는 이중성은 무엇으로 설명될런지 혼란스러울 뿐이요.

◇...서천굴의 적막 그 이유...

최근 사학들의 등록금부정으로 인하여 서천굴의 건물들은 주인을 잃어 그 적막함이 말할 수 없다던데.

이유인즉, 서천굴 사학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지도부는 서울 본관에서 집기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생을 위해 諷토로만!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한 물가안정의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는데.

그 속사정인 즉은 모든 물가의 주상승원인(?)인 노동자임금인상율을 총액제라는 터울을 씌워 5%로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

기술없인, 선진국도 없다

기술없인, 선진국도 없다

이와 되어 국경비가 지금의 반이대로 준 강대국 또는 선진국이란 기준은 국민소득, 군사력등 여러가지 척도가 있었지만 반드시 뒤따라야 할것이 얼마나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마쓰시타사는 '90년 한해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만 우리돈으로 약 2조4천억원이었으며 미국 IBM은 지난해에 한국의 전체과학기술투자액 보다도 더 많은 4조8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했다.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기술투자는 90년에 GNP대비 2.2%인 3조7천억 규모였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한나라가 일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제전자제품도 일본제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정상회담때나 한·일 양국장관 회의때마다 강조하는것이 한일무역역조준제이고 기술공여문제이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내는것은 대부분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일본에게 있는것은 아니다.

제1, 제2, 제3의 임진왜란을 경계 할 때이다.

다.

(광)

프랑스어

5~6월 학기 수강등록
·개강: 1992. 5. 4(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앙스프랑스어

·mauger 1, II, sans fron, I, II, III
·archipel 1, II, III, bonne route 1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eme, SFP, 시사영역봉어
·각과성 특강 속성반, 문법총정리반
·conversation libre, 시사어법반, A 2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622-3601 KWANGJU-526-0189
TAEJU-255-4630 DAEJON-256-5181

alliance française 韓國文化財團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들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준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출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켓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시적이 아름다운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이리저리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23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2. 5. 4 (8주)
- 강사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일 75분 주 5일
- 반원정: 8~13명씩 7단계

·미국·영국·개별 여학연수 상담

언어교육연구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 737-4641 (대)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어학원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ECC 영어회화과정 신설

정원제·Placement Test 실시·전강사 Native Speaker

개강 5월1일(금) 현재접수중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6-0509/273-4395~7

비평과 이론 전문지 제3호 발간! (반년간지)

1992. 봄

현대비평과이론

CONTEMPORARY CRITICISM & THEORY

특집·I 문학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 불문학 교육의 문제점·곽광수
한국 근대문학 교육의 어떤 좌표·김윤식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김홍규
적합성과 다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박인기
한국 영문학 교육의 문제·이상성
문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이상우
중국 고전문학 교육을 위하여·허성도

특집·II 한국 현대비평의 점검 II

민중적 문학의 고집·김명민·남송우
시조연구의 지평·김대형

논문 지식인의 갈등과 세계의 변화·박철호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넘어서·정성준
새크스피어의 광대들·최영

회고작품 하이너 뮐러-렐링 기계·박철호 옮김

번역논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푸스의 언어학과 제네바 언어학과·장정원 옮김
문제의 문제점·김보현 옮김
한국학과 재현의 폐쇄성(잔혹성)·김보현 옮김
(Deconstruction)에 대하여·장정원 옮김

서평 서사이론의 미래지향적 탐구·김준진
포스트모던시대 文壇 지류를 위하여·신정원
한국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윤호병
비평의 타당성과 독해·이명재
탈중심적 언어행위에 관한 독자적 이론개진·이일환
문학과 비평의 재조명·이형식

영어해설 소의효과·문화유물론

한신문화사

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326-4(유선B/D 402)
전 화: 244-1520, 247-3038
지배부 전화: 734-5132, 733-1827

통역 대학원 입시반

대상: 동시통역 대학원 입시준비생
대학생·직장인
기초부터 고급 청취력 희망자

내용: Listening(CNN News)
Writing
Translation

시간: 저녁 5:00~8:00(1일 3시간)
(주4일, 월·화·목·금)

담당: 경 홍 표 선생
(현 KBS보도국 월드 뉴스 담당)
통역대학원졸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종각역 TEL: 734-2442